KOTRA자료 23-156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4
페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Ⅰ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 가. 시장전망 4
   -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 가. 페루 정국 불안 속 APEC 2024 개최와 OECD 가입으로 안정화 도모 6
   - 나. ’24 APEC 정상회의, 신항만 운영 등으로 물류 및 관광 호조 전망 7
   - 다. ’24년에도 슈퍼 엘니뇨에 따른 생산성 리스크 지속 8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1
2. 시장 분석 18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8
   - 나. 교역 19
   - 다. 투자 21
   - 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2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24
   - 가. 교역 24
   - 나. 투자 진출 26
   - 다. 프로젝트 27
   - 라.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

Ⅲ 진출전략

1. PEST 분석 31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2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2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3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4

Chapter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페루, 사회적 갈등과 엘니뇨 관련 피해로 2023년 저성장 불가피 (경제성장률 1.1% 전망)
○ 2024년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완화로 페루의 핵심 분야인 관광업, 농업, 광업 위주 성장 예상

▣ 2024년 페루 경제, '23년 대비 3.0% 성장 예상

• 2023년 페루는 1분기에 지속된 전국적인 반정부시위와 엘니뇨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폭우로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을 겪었음.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2024년의 경우, 위 불안 요소들이 대부분 해소되고, 공공·민간투자 활성화와 소비 회복으로 3.0%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페루 재정경제부(MEF), 2023. 8월)
  - 재정경제부 거시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엔 물가가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어 관광*, 민간투자 및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며 경제성장 예상
    * 2024년 페루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년 대비 42.1% 증가한 320만 명 예상
  - 특히, 페루 GDP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업, 광업과 농업 회복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엘니뇨로 인한 생산성 저하 리스크 지속이 예상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31.4	32.0	32.1	32.6	33	34	34	34
명목GDP	십억 달러	214.4	225.4	229	203.77	225.93	242.39	268.23	279.45
1인당 명목GDP	달러	6,700	6,947	7,048	6,080	6,678	7,094	7,772	8,017
실질성장률	%	2.5	5.7	2.2	△11.1	13.2	2.7	1.1	3.0
실업률	%	6.9	6.7	6.68	12.79	10.7	7.8	7.5	7.4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2.2	1.9	2.0	3.9	7.8	5.6	2.4
재정수지(GDP대비)	%	−3.0	−2.3	−1.6	−8.9	−4.5	−1.4	−2.0	−2.0
총수출	백만 달러	45,422	49,066	47,688	39,311	53,804	66,235	65,564	67,165
(對韓 수출)	〃	2,133	2,474	2,318	2,756	3,450	2,847	N/A	N/A
총수입	〃	37,251	41,870	41,074	36,138	50,889	55,902	53,358	54,603
(對韓 수입)	〃	914	803	744	485	794	778	N/A	N/A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6,700	7,197	6,615	3,173	2,915	10,333	12,206	12,562
경 상 수 지	〃	−2,779	−3,915	−2,154	1,583	−5,103	−10,885	−5,711	−6,30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26	3.29	3.34	3.49	3.99	3.84	3.72	3.6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	0.2	8.96	N/A	1.9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7.7	64.9	88.9	13.8	57.5	116.5	N/A	N/A

자료: IMF, EIU, MEF(페루 재정경제부)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정국 불안 속에 APEC 개최와 OECD 가입 추진으로 안정화 도모
※ '24년 APEC 정상회의, 팬데믹 이후 관광 활성화로 핵심 산업인 관광업 성장 기대가 크지만 역대 최악의 엘니뇨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불확실성 공존

가. 페루 정국 불안 속 APEC 2024 개최와 OECD 가입으로 안정화 도모

▣ 대통령의 낮은 지지 기반으로 정국 불안 지속 전망

- 페루는 지난 5년간 대통령이 다섯 차례 변경되었으며, 2022년 12월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함. 이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023년 1월에는 마추픽추의 관문인 쿠스코 공항이 폐쇄된 바 있음

-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좌파 성향인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임. 특히 멕시코 대통령은 태평양 동맹 의장국 지위 늑장 인계, 2023년 APEC 참석 보이콧 등 페루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 바 있음. 페루 정부 또한 멕시코 대통령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며 입국을 금지함

- 블룸버그(Bloomberg)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으로 CEO들에게서는 71%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전체 국민에게는 12%의 지지율을 얻음. 낮은 지지율로 2024년에도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시민을 위한 APEC 2024', OECD 가입 추진으로 안정 도모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시민을 위한 APEC 2024'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투자,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 헤르바시 총리 또한 APEC 개최로 '성장과 안정'의 길을 걸으며 페루의 최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선언

• 페루, 2023년 초 OECD 가입을 위한 가입계획서(Initial Memorandum) 제출
  - OECD 사무총장은 계획서의 사실 확인과 공공정책, 경제, 사회, 환경, 교역, 투자, 공공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의 심층 심의 후 페루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페루는 조세율이 OECD 가입국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세율과 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언급

나. '24 APEC 정상회의, 신항만 운영 등으로 물류 및 관광 호조 전망

▣ 2024년 APEC 정상회의 의장직 수행

• 페루는 1998년 APEC 가입 이후 2024년에 세 번째로 의장국을 수행하게 되며 총 5개 도시(리마, Trujillo, Arequipa, Urubamba(쿠스코)와 Ucayali)를 거점으로 160회 이상의 APEC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함
  - 페루 관보(El Peruano)는 '16년 페루 APEC에 8,000개의 정부대표단, 2,000명의 기자와 1,200명의 기업인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보도
    * APEC 의장국 현황 : '23년 미국 → '24년 페루 → '25년 대한민국

▣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Chancay(찬카이) 다목적 항만 개장 예정

• 국가 경제성장과 대외무역 진흥을 위한 Chancay 다목적 항만이 '24년 4분기 APEC에 맞춰 운영 개시 예정임. 중국 기업의 투자로 운영되는 동 항만은 연간 100만~15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하는 규모임
  - Chancy 다목적 항만은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져 있으며 페루-중국 간 화물 운송을 35일→25일로 단축하여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물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경제 회복 모멘텀으로 작용 예상

- 사회적 갈등 완화, 팬데믹 이후 여행 정상화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3년 220만 명 대비 46% 증가한 3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페루 외국인 관광객 수는 440만 명을 기록했으나, 팬데믹, 2023년 초 소요 사태로 관광업이 위축된 바 있음
  - 2023년 2분기부터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3년 220만 명 대비 46% 증가한 3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페루 관광업은 GDP의 2.5%를 차지하며 1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다. '24년에도 슈퍼 엘니뇨에 따른 생산성 리스크 지속

▣ 엘니뇨로 인한 홍수 피해로 전염병 확대, 경기 침체 가능성 존재

- 페루 기상청은 '23년 페루의 겨울인 7월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1997년 엘니뇨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으며, 여러 외신은 이번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와 겹치면서 역대 최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

  * 페루의 '97년 7월 엘니뇨 기온 : 19.30도 → '23년 7월 기온 : 19.35도(+0.05도)

- '23년 9월, 물 부족 현상 우려로 544개 구(區) 대상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 '23년 상반기 엘니뇨로 GDP 0.45% 감소, 2024년에도 지속 전망
  - 엘니뇨 현상은 특정 시기의 가뭄과 폭우를 야기하여 페루 주요 산업인 농업, 어업, 건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하락시킴
  - 8월 기준, 뎅기열 감염 사례 전년 대비 378% 증가, 사망자 398명 발생

▣ 엘니뇨 대응을 위한 페루 정부 예산 증액으로 건설, 보건 분야 시장 확대

- 페루 재정경제부 장관, 엘니뇨 피해 예방을 위해 38억 솔(10억 달러) 투입
  - 교통통신부, 주택건설부, 농림부 등 다양한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중
  - 2024년 정부 예산 12% 증액 발표, 엘니뇨 피해 예방 예산 확보 강조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시설 복구 및 건설(중장비), 홍수, 가뭄, 질병 관련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엘니뇨 대응 관련 품목 : △재해복구용품, △펌프, △조립식 교량 및 주택, △중장비 및 부품, △모기 방진복 등 방충 물품, △뎅기열 등 질병 대응에 필요한 해열제, 백신 등 의약품 등

▣ 광업이 2024년 페루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

• 페루 광업석유에너지협회는 광업 생산은 엘니뇨 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페루의 구리 생산량을 280만 톤 기록 예상
  - 2023년 광물 국제 시세 하락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광산 운영 중단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광산 운영 재개로 생산량 빠르게 증가
  - 빅토르 고비츠 협회장은 Quellaveco(케야베코)와 Las Bambas(라스 밤바스) 등 대형 광산의 생산 재개로 2024년은 2022년 대비 14% 증가한 28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인허가 지연으로 2024년 이후 광업 생산량은 정체될 우려도 있음

Chapter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정부, 친기업 정책 추진 중이나 낮은 지지율로 정국 불안요소 상존
※ (경제) 투자 및 교역 감소 등 경기 침체 겪고 있으나 2024년 완만히 회복
※ (산업) 사회적 갈등, 자연재해로 주요 산업 성장 정체
※ (정책) FTA 활용 개방경제로 비즈니스 환경 양호, 보건 품목 위생등록 시행

가. 정치 환경

▣ 2024년 정치 불안 지속 예상

- '23년 초 원주민 출신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적인 반정부시위 발생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대통령직 이양 후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전 대통령 지지자의 반대 지속
  - 지방 도로 봉쇄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발생, 인플레이션 증가
  - 사망자 60명 및 부상자 1,200명 이상 발생, 11억 달러 경제적 피해 발생
  - 영국 민간 경제연구소(EIU)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것이며,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

▣ 중남미 내 좌파 성향 정상들과 외교적 긴장 관계 유지 중

- 여전히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좌파 성향 정부와의 외교적 긴장이 높은 상태

▣ 2024년 정부 예산, 전년 대비 12% 증가한 630억 달러로 증액

- 주요 분야별 비중 : 교육(19.3%), 재난 대비(12.4%), 보건(12.2%), 교통(9.1%), 보안(6.7%), 치안(6.7%) 등
  -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9% 증액되며 암 예방, 의약품 구매, 의료기기 구매, 백신 접종 등에 사용 예정이며, 재난 대비 분야는 뎅기열 예방,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기계 구매 등에 사용 예정

나. 경제 환경

▣ 저성장 기조 지속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반정부시위와 엘니뇨로 인한 폭우 피해가 주요 원인
  - 2023년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재현되었으며, 광업 분야 호조에도 불구하고 엘니뇨 현상이 경제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침

    * '23년 월별 GDP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 : (1월)△1.02, (2월)△0.51, (3월)0.22, (4월)0.31, (5월)△1.43 (6월)△0.56

- 2023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9%, 수입 -13.7% 감소
  - 1분기부터 발생한 시위, 폭우 등에 따른 도로 봉쇄 및 생산활동 저조가 농업, 광업 분야 제품 출하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실적에 반영
  - 주요 광물 가격 및 유가 하락이 수출 제품 단가에 영향을 미침
  - 민간 소비 둔화 등으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감소

- 재정경제부, 2024년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1.1%*, 2024년 3.4→3.0% 하향 조정

    *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를 겪은 2020년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2023년 민간투자 –4.5% 예상, 2024년부터 완만히 회복 전망

- 2023년 상반기, 공공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며 양호

- 반면 2023년 민간투자는 하락하였으나, 2024년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회복 예상
  - 2023년 1분기 광업 분야 투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부재로 23.2% 감소
  - 재정경제부, 2024년 건설·광산 투자 회복으로 민간투자 2.2% 상승 전망
    * 2025년 3.0%, 2026년 3.2%, 2027년 3.5% 증가 예상

▣ 인플레이션 안정화 추세로 2024년 목표치(1~3%) 달성 기대

- 2023년 9월 인플레이션이 5.04%로 12개월 내 최저치 기록
  - 닭고기(△8.9%), 적양파(△21.7%) 등 식품 및 음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안정 추세
  - 페루 중앙은행(BCRP)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1~3%이며 2024년 초 달성 전망
  - 다만, 엘니뇨 관련 피해 규모에 따라 목표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강조

다. 산업 환경

▣ 광업

- 2023년 광물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국제 시세 하락으로 성장 정체
  - 광업은 페루 GDP에서 연평균 12%, 수출상품 중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2023년 상반기 전년 대비 주요 광물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수요 감소,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구리 국제 시세는 톤당 8,788달러, 6.8% 하향 예상
    * 구리(+17.6%), 아연(+7.0%), 납(+1.5%), 철(+14.5%) 생산량 증가
    * 페루 광물 매장량 세계 순위('22년) : 은(1위), 구리(3위), 아연(4위), 금(10위)

- 2024년 대형 광산 운영 재개 및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 성장 회복 예상

▣ 건설업

- 2023년 건설업 성장률 2.8% 감소 예상
  -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8.97% 감소
  - 사회적 갈등 및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프로젝트 중단 등 시장 위축
  - 2024년까지 건설산업 성장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 엘니뇨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2023년 상반기 3.37% 하락
  - Tumbes(툼베스), Piura(피우라), Lambayeque(람바예케) 등 주요 농업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바나나, 옥수수, 망고, 포도, 블루베리의 생산이 감소함
  -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페루 농업개발관개부에서 10억 솔(2억 7,000만 달러) 예산 투입

〈페루 산업별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성장률	비중	금액	성장률	비중	금액	성장률	비중
제조업	16,609	-12%	13%	19,672	18%	13%	19,868	1%	13%
광업	15,473	-14%	12%	16,818	9%	11%	16,876	0%	11%
상업	13,308	-13%	10%	15,601	17%	10%	16,110	3%	11%
건설업	7,376	-15%	6%	9,949	35%	7%	10,243	3%	7%
농림축산업	8,028	1%	6%	8,427	5%	6%	8,791	4%	6%
금융·보험업	7,697	11%	6%	8,025	4%	5%	7,539	-6%	5%
정보통신업	7,139	4%	5%	7,924	11%	5%	7,825	-1%	5%
공공·국방	7,910	4%	6%	8,258	4%	6%	8,505	3%	6%
운송·창고업	6,038	-28%	5%	7,184	19%	5%	7,914	10%	5%
에너지	2,602	-6%	2%	2,827	9%	2%	2,936	4%	2%
숙박·요식업	2,351	-50%	2%	3,346	42%	2%	4,124	23%	3%
기타	37,142	-11%	28%	41,309	11%	28%	42,618	3%	28%
총계	131,673	-11%	100%	149,341	13%	100%	153,349	3%	100%

자료: 페루 통계청(INEI), 1달러당 3.7누에보 솔 적용

라. 정책·규제 환경

▣ 다수의 FTA 체결로 시장개방도 높음

• 수출의 96%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 수출
  - 무역협정 체결 현황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등 58개국 이상
  - 홍콩,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확대를 위해 협상 중이며 발효 시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경쟁 심화 예상
    * 다자간 협정 : WTO, MERCOSUR, ANDE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Pacific Alliance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페루의 주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양자 FTA, 다자간 협정	서명	발효
MERCOSUR	2005.11.30	2006.01 이후
미국	2006.04.12	2009.02.01
칠레	2006.08.22	2009.03.01
캐나다	2008.05.29	2009.08.01
싱가포르	2008.05.29	2009.08.01
중국	2009.04.28	2010.03.01
EFTA	2010.07.14	2011.07.01
대한민국	2010.11.14	2011.08.01
태국	2010.11.18	2011.12.31
멕시코	2011.04.06	2012.02.01
일본	2011.05.31	2012.03.01
파나마	2011.05.25	2012.05.01
EU	2012.06.26	2013.03 이후
코스타리카	2011.05.26	2013.06.01
온두라스	2015.05.29	2017.01.01
호주	2018.02.12	2020.02.11
CPTPP	2018.03.08	2021.09.19

▣ 보건·의료 품목 및 식품은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제도 시행 중

•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 전 위생등록 필수
  - 수입업체에서 페루 무역 온라인 창구(VUCE, www.vuce.gob.pe)를 통해 진행하며, 위생등록 인증서가 있어야 통관 가능
  -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상이
  * 의약품은 3~6개월, 의료기기는 30~90일 소요

▣ 시장 친화 경제정책, 비관세장벽 및 수입 금지 품목 최소화 운영 중

•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 실시, 적용 품목은 한정적
  - 바이오디젤(미국·아르헨티나), 신발(중국), 지퍼(중국), 폴리에스테르 섬유(중국·파키스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 별도 규제 조치 없음
  - 페루 특허청(INDECOPI) 산하의 '덤핑, 보조금 및 비관세장벽 철폐 위원회(CDB)'가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심사
  - 반덤핑 규제 이외에도 수입 금지 조치, 장기간 소요되는 위생등록 또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며, 타 중남미 국가 대비 수입 규제 제도가 까다롭지 않은 편

• 중고차·중고차부품 등 일부 수입 금지 품목 존재
  - 연식 2년 이상 중고차, 중고차부품, 중고의류, 페루 전통주(피스코) 등에 수입 규제 적용
  - 이는 내수시장 보호 목적 및 대기환경 오염 방지(중고차) 목적

▣ 비즈니스 환경 순위 중남미 내 상위권

• 영국 민간 경제연구소인 EIU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 중남미 국가 중 4위
  - GDP 대비 낮은 공공 부채 비율*(33.6%), 외환보유고 안정성, 중앙은행 신뢰성이 강점
    * 중남미 지역 평균 68.2%
  - FTA를 통해 확보된 대외무역 개방성과 거시경제 관리 중
  - 다만 최근 빈번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경영환경 변화 가능성 존재

▣ ESG 요구 증가 추세

• 페루 환경부, '국가 환경 정책 2030' 수립
  - 지속 가능한 환경,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환경 보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

• 기업 차원의 개별적 ESG 확산 중
  - 민간 기업조사기관 MERCO는 매년 ESG 이행도를 조사, 발표함
  - 페루 N사는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 재료 및 천연 성분 화장품을 생산 중이며 아마존 보호를 위해 아마존 커뮤니티와 협력 중으로 환경(E) 분야 1위* 차지
  - 페루 I사는 금융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농촌지역에 이동 금융 서비스 제공 및 팬데믹 당시 의료제품 후원하여 사회(S), 거버넌스(G) 분야 1위 차지

2 시장 분석

※ (시장 특성) 1차산물(광물·에너지·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 보유, 공산품은 수입 의존
※ (수출입) 중국과 미국이 최대 교역국, 광물·농수산물 수출 비중이 높음
※ (투자) 사회적 갈등 및 자연재해로 외국인 투자 정체 예상
※ (프로젝트) 2022~2025 국가인프라개발계획을 수립, 기반 구축 중

가. 시장 특성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광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 세계적인 수준의 광물자원 보유국
  - 페루는 2022년 전 세계 매장량 기준 은(銀) 1위, 구리 2위, 아연 4위, 금 10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22년 전체 GDP의 11%가 광업에 해당
  - 한국의 對페루 전체 수입 중 구리(6.4억 달러) 2위, 아연(3.2억 달러) 3위 차지

〈2022년 산업별 페루 GDP 구성〉

(단위: %)

분야	비중
농림축산업	5.7
어업	0.4
광업	11.0
제조업	13.0
전력	1.9
건설업	6.7
상업	10.5
서비스업	28.0
기타(세금 등)	22.8
합계	100

자료: 페루 통계청(INEI)

▣ 중남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장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시장
  -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환율 안정성 확보
  - 페루 공공 부채는 GDP의 33.6%이며 중남미(평균 68.2%)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수도권 인구 1,000만 명, 신흥 중산층 부상
  - 높은 수입·수요 및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적은 수입 규제가 장점

나. 교역

▣ 페루 對세계 수출입 현황

- 국가별
  - (수출) 전체 수출 중 미·중 비중이 48.3% 차지
    * 2013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페루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음
  - (수입) 전체 수입 중 미·중 비중이 45.8% 차지

〈2023년(~7월) 기준 페루 10대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페루의 10대 수출국			페루의 10대 수입국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1	중국	10,880	33.5	중국	7,387	25.1
2	미국	4,787	14.8	미국	6,086	20.7
3	캐나다	1,485	4.6	브라질	2,253	7.6
4	한국	1,330	4.1	아르헨티나	1,688	5.7
5	일본	1,237	3.8	멕시코	1,065	3.6
6	인도	1,109	3.4	캐나다	750	2.5
7	스페인	1,086	3.3	칠레	747	2.5
8	칠레	1,070	3.3	콜롬비아	697	2.4
9	브라질	1,040	3.2	일본	641	2.2
10	네덜란드	875	2.7	독일	634	2.2

자료: 페루 관세청(SUNAT)

- 품목별
  - (수출) 미가공 1차산업 품목 위주의 수출구조 보유.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광물(구리, 동, 아연 등)과 농수산물(아보카도, 오징어) 등이 있음
  - (수입) 제조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석유제품, 자동차, 노트북 등 공산품과 옥수수, 밀 등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페루 주요 수출 품목(2023년 8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4단위	품목명	2021		2022		2023(~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603	구리광과 그 정광	18,258	64.3	16,909	△7.4	13,007	20.9
2	7108	금	7,778	21.5	7,447	△4.3	4,615	△7.4
3	7403	정제 동과 동합금	2,373	32.3	2,585	8.9	1,828	10.5
4	2710	석유와 역청유	1,899	143.9	2,470	30.1	1,480	△12.1
5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2,184	69.1	2,049	△6.2	1,277	△10.7
6	0804	아보카도, 망고	1,345	29.7	1,193	△11.3	1,155	13.2
7	2711	천연가스	1,706	219.2	3,169	85.8	1,116	△53.3
8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1,048	119.2	1,152	9.9	1,010	47.3
9	2601	철광과 그 정광	2,256	96.8	1,749	△22.5	968	△19.9
10	2607	납광과 그 정광	1,277	47.0	1,048	△17.9	902	42.3
…	….	……..	…	…	…	…	…	…
총계			60,919	47.8	63,649	4.5	40,540	△2.6

자료: 페루 관세청(SUNAT)

〈페루 주요 수입 품목(2023년 8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4단위	품목명	2021		2022		2023(~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0	석유와 역청유, 폐유	4,181	82.6	7,951	90.1	3,620	△31.0
2	2709	원유	1,800	131.9	2,555	41.9	1,922	14.4
3	8703	승용자동차	1,452	49.4	1,787	23.1	1,300	13.8
4	8517	무선통신전화기	1,832	45.3	1,629	△11.1	1,034	△14.5
5	8704	화물자동차	1,395	77.4	1,446	3.7	940	1.2
6	1005	옥수수	1,105	41.9	1,292	16.9	678	△21.3
7	8471	노트북 및 주변기기	1,305	29.3	1,168	△10.5	560	△31.1
8	2304	대두유 추출물	691	40.0	720	4.1	537	9.2
9	1001	밀과 메슬린	616	9.3	872	41.6	515	△15.0
10	1507	대두유	727	75.4	767	5.4	438	△8.2
…	….	……..	…	…	…	…	…	…
총계			50,865	40.8	60,150	18.3	33,949	△16.0

자료: 페루 관세청(SUNAT)

다. 투자

▣ 투자 진출 동향과 유망 분야

• 중남미에서 칠레, 우루과이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 보유

〈2023년 9월 기준 중남미 국가신용등급 상위 5개국〉

	S&P	MOODY'S	FITCH
칠레	A	A2	A-
우루과이	BBB+	Baa2	BBB
페루	BBB	Baa1	BBB
멕시코	BBB	Baa2	BBB-
파나마	BBB	Baa2	BBB-

자료: KOTRA 리마 무역관

•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예상
  - 페루 중앙은행(BCRP)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페루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4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9억 4,700만 달러) 대비 50% 감소함
  -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부재, 잦은 소요 사태 영향으로 2023년 민간 투자 4.5% 감소를 예상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감소 전망
  -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2025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투자 유망 분야
  - (광업)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광업 투자지로 Southern Peru Copper Corp(미국), Sociedad Minera Cerro Verde(미국), Minera Las Bambas(호주) 등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 중
  - (농업) 농업 부문은 2022년 3.5% 성장하였으며 유망 품목으로는 블루베리, 퀴노아, 아스파라거스, 포도, 아보카도, 아티초크, 망고 등이 있음
  - (관광) 마추픽추 등 다양한 관광명소와 최적의 자연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미식 관광지로 급부상함
  - (인프라) 2023년 상반기 페루 교통 인프라 투자는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면서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 중임

▣ 對페루 주요 투자국

• 영국, 스페인, 칠레, 미국이 주요 투자국
  - 2021년 12월 기준 對페루 투자는 영국(22%), 스페인(18%), 칠레(12%), 미국(11%) 순
  - 영국은 광업 및 서비스업, 스페인은 주로 통신 및 에너지, 칠레는 금융 및 유통업, 미국은 제조업 및 석유 분야 투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광업(24%), 금융(20%), 통신(19%), 에너지(12%), 제조업(12%) 순으로 투자

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페루 재정경제부(MEF), 국가인프라개발계획(PNISC 2022~2025) 추진

• 국가 경제 성장 촉진, 경쟁력 개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 총 72개 사업, 366억 달러 투자 예정
  - 전체 계획 중 교통 부문이 841.47억 솔, 18개 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 22개, 상하수도 12개, 통신 9개, 교육 4개, 전기 2개 사업 추진

▣ 2023년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 2022~23년 총투자액 134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10개 프로젝트 시행 중
  - 페루 주요 프로젝트는 국가 생산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찬카이 다목적항 터미널(36억 달러), 리마-카야오 지하철 2호선(53.4억), 리마 국제공항 확장(12억 달러) 등이 있음

• 2024년 프로젝트 시장 전망
  - 총 64억 달러 규모의 36개 프로젝트 예정
  - 민생과 직결되는 교통 체증, 도로망 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
  - 교육, 보건 환경 개선,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공급 분야 역시 역점 분야임

〈주요 PPP 프로젝트 리스트〉

발주처명	프로젝트명	발주 규모 (백만 달러)	공고 예정 시기
교통통신부 (MTC)	리마 외곽순환도로 사업 (Anillo Vial Periferico)	2,380	2023년 4분기
교통통신부 (MTC)	침보테(Chimbote) 국제 항구 터미널 건설	172	2024년 2분기
주택건설부 (MVCS)	우앙카요(Huancayo)시 하수 처리 플랜트	172	2024년 1분기
교육부 (MINEDU)	리마 메트로폴리탄(Lima Metropolitana) 구역 학교 개선 사업	258	2024년 1분기
보건부 (MINSA)	Cajamarca(까하마르카) 병원 운영 및 유지 관리	176	2024년 2분기
통상관광부 (MINCETUR)	산크리스토발(SAN CRISTÓBAL) 케이블카 건설	16	2024년 1분기

자료: 페루 투자청(Proinversion)(2023년 10월)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 FTA 효과로 양국 간 교역 규모 증가

- 2011년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2년까지 연평균 7% 성장
  - 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 97%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 철폐
  - 2022년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 규모는 7.78억 달러로, 페루 전체 수입시장의 1.66% 점유(13위)
  - 對페루 수입액은 28억 달러로, 페루 전체 수출시장의 4.3%를 점유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

▣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 한-페루 수출입 동향 (2023년 1~7월 기준)
  - (수출) 4.12억 달러 기록하여 '22년 동기 대비 13.6% 감소
  - (수입) 19.7억 달러 기록하여 '22년 동기대비 8.5% 감소
  - (수지) 15.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입 동향 (2023년 1~7월 기준)
  - (수출) 페루 전체 수입이 13.7%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또한 13.6% 감소함.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8703), 화물자동차(8704)가 각 40.5%, 28.6% 감소
  - (수입) 석유가스, 아연, 대왕오징어, 망고 등 광물과 농수산물 위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對페루 수입 또한 전년 대비 8.5% 감소함

〈한국의 對페루 수출 통계(2021~2023년 7월)〉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1년	794	63.6	3,450	25.2	-2,656
2022년	778	△2.0	2,847	△17.5	-2,069
'23년 7월	412	△13.6	1,972	△8.5	-1,560

주: 2023년 7월 통계 기준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對페루 주요 수출 품목(2023년 7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4단위	품목명	2021		2022		2023(7월까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8703	승용자동차	99	148.6	186	88.2	65	△40.5
2	2710	석유제품(원유 제외)	83	755.3	18	△77.9	43	364.4
3	3901	에틸렌 중합체	53	246.1	36	△33.2	24	18.5
4	8704	화물자동차	46	17.1	55	19.5	22	△28.6
5	3002	방역물품·백신	29	△30.5	23	△20.8	21	7.0
6	3902	프로필렌 중합체	49	98.9	51	3.1	19	△39.4
7	8708	자동차부품	34	62.7	35	2.0	19	△4.5
8	2523	시멘트크링커	23	45.5	4	△84.4	14	0.0
9	8429	중장비	27	145.6	24	△10.5	13	△30.1
10	2837	시안화물	9	15.0	10	10.5	12	145.5
총계			794	63.6	778	△2.0	412	△13.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對페루 주요 수입 품목(2023년 7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4단위	품목명	2021		2022		2023(7월까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1	석유가스, 탄화수소	404	△40.6	673	66.6	597	△11.4
2	2603	동광과 그 정광	1,289	41.0	638	△50.5	399	1.5
3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423	68.4	317	△25.1	187	△23.7
4	2607	납광과 그 정광	444	12.5	256	△42.4	178	12.5
5	2710	석유와 역청유	226	437.8	238	5.4	107	△54.9
6	1605	조제, 보존 처리한 갑각류	69	△21.1	83	20.9	60	65.5
7	0307	연체동물(오징어 등)	47	△23.1	45	△4.5	56	197.8
8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53	786.3	28	△48.0	47	168.8
9	0804	아보카도, 망고	55	78.8	69	△24.4	44	△19.2
10	2701	석탄 및 연탄, 조개탄	8	△12.2	59	632.1	41	10.4
총계			3,450	25.2	2,847	△17.5	1,972	△8.5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페루 직접투자 현황

- 한국의 對페루 해외 직접투자는 2022년 7.02억 달러를 기록
  -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대부분(99%)을 차지. 천연가스, 아연 등이 주요 투자 분야임
  - 제조업의 경우, 페루가 저가 선호 시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수입대체산업의 투자 가능성이 부각되지만, 시장 규모, 현지 인력, 인프라, 유통구조,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 투자 신고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2건으로 1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규모 투자로 분석
  -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건설업 투자 진출 신고 건수가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1만 달러, 2021년 3만 달러 신고

  * 페루의 對한국 투자는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음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약 20개의 한국 진출 기업 법인·지사 설립
  - 원자재 관련 현지 직접투자가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주춤한 상태

▣ 우리 기업 투자 성공 사례 : S사(액화천연가스)

- 2010년 한국의 주요 정유기업 S사는 페루 LNG 공장 준공 후 상업 생산체계 구축
  - 페루 88광구(카미세아) 및 55광구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LNG 판매
  - 석유 개발, 파이프 운송,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수출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 우리 기업 투자 성공 사례 : K사(아연 등)

- 2010년 비철금속 기업인 K사는 페루 파차파키(Pachapaqui) 광산 인수
  -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인수했으며 아연, 납, 동 등 전량 매입

▣ 우리 기업 투자 성공 사례 : L사(동광산 투자)

- 비철금속 기업인 L사는 페루 광산기업 민수르(Minsur)와 약 10억 달러 규모의 '미나 후스타 동광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2018.09.11)
  - 계약기간 총 10년, 계약 규모 56만 톤으로 매년 5~6만 톤의 동정광 공급
  - 동 협약 관련 부가수익으로 인근에 세워질 습식 제련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동 총 15.6만 톤의 판매 권리도 획득함

▣ 한국의 對페루 투자 시사점 및 주의사항

- 광업 투자 시 채굴권 확보와 별개로 지상개발권을 지역사회와 협의해야 함
  - 페루 토지법(법령 26505)에 따르면 광업, 석유가스 채굴, 인프라 건설 등 페루 영토에 민간투자를 진행할 경우 지하개발권에 대한 국가의 승인과는 별개로 지상개발은 부동산 소유자 혹은 지역사회와 별도 합의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동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 발생

    * 지역사회는 학교, 병원, 도로 등 지역 인프라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함

- 광산업 등 천연자원 및 인프라 투자 진출의 경우 지역사회 분쟁 가능성에 더욱 유의
  - 계약서 등 제반 서류 작성 시 현지 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 필수

〈2023년 9월 한국 對페루 투자 현황〉

업종	투자 신고 건수	투자금액(천 달러)	비중(%)
광업	1	238,525	99.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07	0.04
합계	5	238,632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프로젝트

- 페루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형태
  - (정부 간 거래 활발) 중남미 타국 대비 정부 재정 확보가 용이하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높아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G2G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 인프라(철도·도로), 재건 등을 G2G로 추진한 사례가 있음

〈주요 G2G 프로젝트 리스트(2023.9월)〉

시기	분야	프로젝트명	수주 국가	현황
2015년	문화	판아메리칸게임 사업총괄관리(PMO)	영국	종료
2015년	치안	내무부 순찰차 납품	한국	종료
2015년	방산	SIMA 국영조선소 다목적함(LPD) 건조	한국	종료
2017년	방산	공군 훈련기(KT-1P) 납품	한국	종료
2019년	인프라	교통통신부 친체로 공항 PMO	한국	종료
2020년	인프라	북부 재건사업 PMO	영국	입찰 종료
2020년	보건	병원 재건사업 PMO	프랑스	입찰 종료
2021년	인프라	중앙고속도로 건설 PMO	프랑스	입찰 종료
2022년	치안	내무부 경장갑차·물대포차 구매	-	'23년 4분기 발표 예정
'23년	인프라	페루 아마존 도로 정비 PMO	일본	우선협상자 선정
2024년	인프라	Chavimochic(차비모칙) 3단계 PMO	-	진행 중
2024년	방산	육군 8x8 장갑차 구매	-	진행 중
2024년 이후	인프라	리마 메트로 3·4호선 사업	-	G2G 발주 가능성 있음

자료: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 (PPP) 그 외 인프라, 수자원(상하수·오수처리시설), 에너지 개발 및 송배전, 의료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는 PPP(민관 공동 투자) 또는 민간 주도 투자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주 후 운영까지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진행됨. 원활한 수주 활동 및 시공, 운영을 위해서는 페루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을 아우르는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도 검토가 필요함

라.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가입 추진

• 한국,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에 대해 페루 정부에 지지 요청
  - 2023년 8월 태평양 동맹(Pacific Aliance) 의장직을 맡은 페루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의 협상 추진을 언급함
    * 태평양 동맹: 중남미 내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4개국(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이 2012.6월 구성한 경제협력지대로, 회원국 간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4개 회원국, 특히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 발생

▣ 행정안전부-페루 총리실,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운영

- 2021년 4월, 행정안전부와 페루 총리실 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설치
  - 페루 전자정부 역량 강화와 IT 인프라 확대, 스마트시티 확산 활동 추진
  - 디지털정부 협력 센터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정보화사업 관심이 확산 중임

▣ 방위산업 협력

- 2010년 한-페루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이후 상호 신뢰를 이어가고 있음
  - 2012년 KT-1 고등훈련기 20대 G2G 계약, '15년 내무부 순찰차 2,108대 G2G 계약, '18년 국영 조선소 다목적함선 건조 수주 등 치안·방산 분야 협력 활발
  - 2023년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 페루 방문과 방산 홍보회 개최로 교류 지속
  - 특히 한국은 고등훈련기, 다목적함선의 현지 생산 등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하여 페루는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높게 평가
  - 페루 최대 방산 전시회(SITDEF) 주요 한국 기업 연속 참여('17, '19, '21, '23년)

  * 2023년 주요 전시 품목 : 전투기, 헬기, 장갑차, 경비함, 함정, 시스템 솔루션 등

- 주요 수요 품목
  - (내무부) 경장갑차, 물대포차
  - (국방부) 육군 8×8 장갑차
  - (해군) 해군기지 이전·현대화 사업, 호위함·연안경비정·상륙정 건조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

- 지자체의 주요 관심사인 치안·교통 분야 스마트시티 수요 다대
  - 우리 기업(H사)이 리마 코마스(Comas), 인데펜덴시아(Indepencia) 등 페루 내 28개 자치구에 스마트 감시카메라를 납품한 바 있으며, 페루 감시카메라 시장 내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페루 진출 한국 기업과 협업하여 피우라(Piura)시, 이카(Ica)시, 라몰리나(La Molina)구청 등 지자체의 수요 발굴 중

Chapter

Ⅲ

진출전략

Ⅲ 진출전략

> ※ 인플레이션 안정, APEC 2024 개최 등으로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예산 확대로 재난 대비, 인프라 건설, 보건 분야 진출 확대 기대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친기업 정책 추진 중이나 낮은 지지율로 정국 불안 지속 • 중남미 지역 내 타 국가들과의 외교적 긴장 관계 지속 • 2024년 정부 예산 12% 확대 (630억 달러) • 아시아 국가(인도, 홍콩)와의 FTA 확대를 위한 협상 진행 • APEC 2024 정상회의 개최 및 OECD 가입 추진 •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투명성 확보되는 G2G 선호
E 경제 (Economic)	• 1차산품 위주 수출과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낮은 경제성장 전망 (3.0%대) • 비교적 낮은 인플레로 안정적인 금리 지속 전망 (7.5% 이하) • 높은 외환보유고로 안정적인 환율 지속 전망 (1달러당 3.5~3.8누에보 솔 예상) • 연간 인플레이션 : 5.04% ('23년 9월 기준)
S 사회문화 (Social)	• 출산율 2.19%, 65세 인구 비율 8.7%로 고령인구 확대 추세 • ESG 확산으로 친환경 포장재, 제품 관심 증가 • 팬데믹, 엘니뇨에 따른 전염병 확산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제품(K-뷰티 등) 관심 증가
T 기술 (Technological)	• 팬데믹 이후 소비자 전자상거래 이용률 증가 • 페루 정부, 전기자동차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중 • 치안 및 교통 체증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등 IT 프로젝트 수요 확대 • 페루 전자정부 보급 확대 추진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페루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한류 확산으로 소비자 대상 긍정적 이미지 보유 • 제조업 강국으로 높은 품질 보유 • 성공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방산 G2G 수행으로 주요 입찰 초청 대상 국가로 부상	• 지리적·문화적 원거리로 시장 접근 애로 • 중국산과의 품질·가격 경쟁 심화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 엘니뇨 대응을 위한 구매 수요 존재 • 광업·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 바이오·의료 및 기초화장품 시장 성장 • 페루의 교통, 보건, 재난 대비 등 예산 확대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	• 사회적 갈등으로 시장 불확실성 상존 • 자연재해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존재 • 뎅기열 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엘니뇨 관련 대응을 위한 제품 수요 확대 • 한류 확산 활용 K-뷰티 제품 진출 확대 • G2G, 방산, ICT 분야 프로젝트 수주 확대	엘니뇨 대응 제품 집중 전략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 중고차 규제로 기존 차량 유지보수 수요 증가 • 한국 브랜드 이미지 활용 디지털 마케팅 • 프로젝트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기회 포착	G2G 활용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 광산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른 중장비 니즈 충족	디지털을 활용한 유통 시장 공략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 화상상담을 통한 지리적·심리적 약점 보완 • 보건부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한 수출 확대	보건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진출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4년 진출전략

주요이슈	산업별 진출전략
① 엘니뇨 관련 피해 예방	○ 페루 정부의 엘니뇨 관련 예방을 위한 구매 수요 대응 - 사절단 파견, 상담회를 통한 인콰이어리 발굴
② 화장품 시장 성장	○ 한류 열풍을 활용한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 - 페루 화장품상의와 협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마케팅 확대
③ 보건의료산업 확대	○ 페루 보건부 공공 입찰 정상화에 따른 구매 수요 대응 - 페루 정부와의 소통 채널 확보 및 주요 유통업체 발굴
④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페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계획과 기회 - 공항·철도 등 한국 기업 강점 분야 진출 확대
⑤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유통망 진출 - 온라인 구매 전환이 빠른 품목 중심으로 주요 벤더 협업
⑥ 자동차부품 수요	○ 페루 지방 중심의 자동차부품 시장 공략 - 주요 지방 디스트리뷰터 발굴, 지역상공회의소 협업

분야별 페루 진출 차별화	○ **엘니뇨 경기 침체 대비를 위한 수요 파악 및 대응** ○ **인프라 프로젝트, 보건, 화장품 등 한류 활용 진출** ○ **전자상거래 벤더 협업, 지방 중심의 자동차부품 마케팅 강화**

3-1. 페루 정부의 엘니뇨 관련 예방을 위한 구매 수요 대응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배경) 2023년 엘니뇨로 인한 산업 생산성 저하,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확대
ㅇ (기회) 페루 정부의 향후 엘니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품 구매 수요 증가
ㅇ (전략) 기계 및 중장비 분야 중심의 사절단 파견, 상담회를 통한 인콰이어리 발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3년 상반기 엘니뇨로 인해 GDP 0.45% 감소
  - 엘니뇨 피해 발생 시 GDP의 1~2%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페루 경제의 주요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 언급
  - 엘니뇨 현상 조사위원회(Estudio Nacional del Fenomeno El Nino), 2024년 페루 엘니뇨 피해 확산 가능성 경고

• 페루 정부, 엘니뇨 피해 예방을 위해 10억 달러 투입
  - 페루 재정경제부 장관은 '24년 정부 예산 12% 증액을 발표하며 엘니뇨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함
  - 페루 교통통신부, 엘니뇨 피해 방지를 위한 교량 총 123개 건설 중이며, 관련 기계 120대 구매 발표
  - 페루 보건부, 엘니뇨 피해 관련 뎅기열 치료제, 의료기기 등 구매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재해 복구용 펌프, 중장비 및 부품, 병충 예방용 방충 물품, 뎅기열 등 관련 질병 대응에 필요한 해열제 등 의약품

• 국내 지자체 및 협회와 협업하여 플랜트 및 기계 분야를 비롯한 중장비 및 건설기기 품목 중심의 사절단 파견
  - 고산에서 운용 가능한 중장비 조달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건
  - 또한 페루 바이어는 유지보수에 대한 A/S 가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행이 가능한 에이전트와 계약이 중요

• KOTRA 사업을 통한 인콰이어리 발굴 및 수출
  - KOTRA 리마 무역관 상담회를 통해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엘니뇨 관련 수중 펌프, 의약품, 방충 물품 인콰이어리 발굴

3-2. 한류 확산을 활용한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ㅇ (배경)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
- ㅇ (기회) 한류 확산 K-뷰티 관심 상승, 특히 기초화장품 부문 강세
- ㅇ (전략) 페루 화장품상의와 협업을 통해 바이어 발굴, K-뷰티 제품 홍보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페루 화장품상의에 따르면 페루 화장품 시장 규모는 22억 달러임
  - 2009년 화장품 시장 규모 12억 달러에서 매년 높은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23년 또한 6% 이상 성장 전망
  - 페루 화장품 시장은 국내총생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페루 기초화장품 분야, K-뷰티 제품을 중심으로 폭발적 성장 중
  - 2023년 페루 기초화장품 사용률이 2013년 8% 대비 30%p 성장한 38% 기록
  - 주요 일간지들은 스킨케어 시장 성장의 원인으로 K-뷰티 붐을 지목함

- 페루의 화장품 수입의존도는 매년 증가하여 수입 화장품 76% 차지
  - 페루 경제구조는 원자재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공산품 수입의존도가 높음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페루 화장품상의(COPECOH)와 협업을 통한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
  - KOTRA 페루 K-뷰티 로드쇼 사업(잠정)을 통해 화장품상의에서 발굴한 바이어-국내 기업 상담회, 화장품 인증 지원, 테스트 마케팅, B2B 수출 성약

- 페루 COSMO BEAUTY 등 화장품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여 주요 유통업체 발굴
  - 페루 화장품 수출은 위생등록이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디스트리뷰터 발굴 필요

- 온라인 SNS 채널 홍보를 통한 K-뷰티 제품 마케팅
  - 한류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K-뷰티 관련 주요 SNS 인플루언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30 고객 대상 홍보 확대

3-3. 페루 보건부 공공 입찰 정상화에 따른 구매 수요 대응 전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ㅇ (배경) 페루 의약품 시장 약 22억 달러로 평가되며 의약품 공공 구매 입찰 정상화
- ㅇ (기회) 한국 의료제품 등록 절차가 단축되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음
- ㅇ (전략) 사절단 등을 통한 페루 정부와의 소통 채널 확보 및 주요 유통업체 발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3년 1월부로 페루 정부의 의약품 공공 구매 입찰 프로세스 정상 진행
  - 페루 보건부는 의약품 수입시장에서 9%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2년 보건부 장관이 세 차례 바뀌는 등 내부 영향으로 공공 입찰 지연

• 2024년 페루 정부 예산 12% 증액 예정이며 보건 분야가 주요 증액 부문 중 하나임
  - 페루 정부는 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2015년 한국이 의료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의료제품 등록 절차·시간 단축
  - 페루 진출 시 인증 공유로 안데스 국가(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진출 용이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높아진 한국산 제품 관심도를 바탕으로 보건부 등 공공 납품 확대 추진
  - 페루 보건부와 중남미 헬스케어 산업 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과 페루 정부 기관 간 소통 채널 확보

• KOTRA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진출
  -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업별 목표시장 개척 지원, KOTRA 사업 연계 지원 등

• Tecnosalud 등 의료제품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여 주요 유통업체 발굴
  -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페루 위생등록이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디스트리뷰터 발굴 후 진출

3-4. 페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주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배경) 국가인프라개발계획(PNISC 2022~2025) 발표 (72개 사업, 총 366억 달러 규모)
○ (기회) 페루는 중남미의 한국 기업 프로젝트 수주 건수 1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전략) 한국 국토부, 공항공사, 철도공단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수주 지원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페루 건설시장은 연평균 4.63% 성장하면서 페루 경제성장을 견인
  - 향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연평균 7.0% 이상 성장 예상

• 페루 재정경제부는 국가인프라개발계획(PNISC 2022~2025)을 발표함
  - 총 72개 사업, 약 366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계획

• 페루, 중남미 내 한국 기업 프로젝트 수주 건수 1위 기록
  - 2023년 8월 기준, 중남미 전체 프로젝트 수주 30건 중 6건이 페루
  -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수로 개선, 도로 개량 등 페루 내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공항·철도 등 기 수주 분야 수행실적을 기반으로 팀코리아를 구성
  -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19년, 3,000만 달러) 및 공항 시공 수주실적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방공항 확장 및 운영권 확보 추진
  - 리마 메트로 2호선 감리('15년, 2억 달러) 사업 활용, 리마 메트로 3·4호선 수주 지원
  - 국토부, 공항공사,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G2G 수주 추진

• 진출 기업 중심 한-페루 프로젝트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주 노하우 공유
  - 페루는 물리적·언어 장벽이 높아 현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정부 고위 관료와 담당 공무원 교체가 잦아 중장기적 네트워킹 전개가 요구됨
  - 기존 프로젝트 수주 사례를 기반으로 성공/실패요인 분석 및 주의사항 숙지
  - 국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입찰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충분한 모니터링 필요

3-5.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유통망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배경) 페루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1,560만 명으로 추산, 인구의 46%가 온라인 구매 이용
ㅇ (기회) 한류 인기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소비재 구매 문의 증가
ㅇ (전략) 온라인 구매 전환이 빠른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 진출 지원 벤더 협업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3년 페루 전자상거래 시장 10.4% 성장 예상
  - 세계 평균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8.9%)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
  - 페루 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페루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2021년 93억 달러에서 2022년 121억 달러로 확대
  - 페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18~44세 연령대가 80% 이상 차지

- 한류 인기로 소비재 K-pop 관련 앨범, 굿즈 등 소비재 관심 증가
  - 한국의 對페루 도서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K-pop 아티스트 사진 앨범임
  - 온라인 사전 예약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인기 확산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음반, 도서, K-화장품 등 온라인 구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 타깃
  - 2023년 상반기 음반(184%), 도서(132%), 액세서리(108%), 애완동물 제품(96%) 등 온라인 구매 증가

- 유통망 진출 지원 벤더와의 협업으로 제품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대
  - KOTRA 본사 추진 해외 유통망 협력사업 참가로 신규 입점 및 판촉 지원
  - 한국 소비재 수출대전, 한류박람회 등에 참가 바이어 유치

- 화장품 등 보건제품의 위생등록을 위해 전문 에이전트 발굴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의 수입 및 온라인 판매의 경우 위생등록이 필수적이며 수입사만이 등록 과정을 처리할 수 있음
  - 유력 에이전트 확보로 시장 진출 지원

3-6. 페루 지방 중심의 자동차부품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배경) 중고차 수입을 2년 이내 연식으로 제한
ㅇ (기회) 한국 차량의 수요가 높고 중고차 수입 금지로 A/S부품 수요 확대
ㅇ (전략) 차량 노후로 자동차부품 수요가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마케팅 강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고차 수입 요건 강화 및 과세율 상승에 따라 중고차 수출 한계
  - 연식 2년 이하 및 운행거리 32,000km 이하로 제한하며 중고차 구매 특별소비세 인상(30→40%)

• 페루의 평균 차량 연식은 13년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노후 차량 다수
  - 중고로 수입해온 단종된 노후 차량에 대한 부품 구매 수요 존재
  - 지방 도로 정비가 미흡해 차량 타이어 교체 수요 꾸준히 존재
  - 2023년 8월 기준 타이어, 윤활유, 모터, 필터 순으로 수입 수요가 높음

• 페루 신차 판매량 2022년 15.9만 대, '23년 8월 기준 11.4만 대 기록
  - 2023년 기준 도요타(22.0%), 현대차(9.1%), 기아차(9.0%) 순으로 판매
  - 현대·기아차의 수요는 매년 15~20% 내외로 유지 중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노후 차량이 많은 페루 지방을 중심으로 마케팅 강화
  - 제2 도시인 아레키파(155만 명)를 비롯, 쿠스코(139만 명), 트루히요(91만 명) 지역 주요 디스트리뷰터를 파악하여 마케팅 실시

• KOTRA 지사화 서비스를 활용한 전시회 참가, 지역상공회의소 협업 현지 바이어 미팅 등 추진
  - Expomecanica & Autopartes 2024(2024년 5월 예정) 등 관련 전시회 참가 후 주요 디스트리뷰터 발굴 및 제품 홍보
  - 아레키파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업을 통한 주요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지원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화장품	선정사유	• 화장품 시장 호황, 2023년 약 6% 성장 예상 – 2023년 기초화장품 시장 규모 약 2.5억 달러 – 기초화장품 분야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음 • 한류 열풍으로 인해 K-화장품 관심 증가
	시장동향	• 2022년 화장품 시장 22억 달러 규모 • 인구 70% 이상이 기초화장품 사용 경험 없음 – 최근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성장 가능성 높음 – 기초화장품 사용률 '13년 8% → '23년 38% 증가
	경쟁동향	• 주요 경쟁사 – NATURA, La Roche, ISDIN, Avon 등 • 주요 경쟁국 –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진출방안	•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K-뷰티 보급 확대 – 페루 화장품상의(Copecoh)와 상담회 개최 등으로 페루 주요 유통업체 마케팅 확대
품목명 2		
건설중장비	선정사유	• 엘니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구매 수요 존재 – 페루 재정경제부, 2024년 구매 예산 확보 강조 • 광업은 '22년 기준 GDP의 11%를 차지 –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
	시장동향	• 저가의 중국 제품의 경우 품질 신뢰도가 낮음 – 가격보다는 품질에 대한 보장이 필요 • 인증과 같은 규제와 관세율이 없어 진출 용이 • 고산지대에서도 운용 가능한 중장비 필요
	경쟁동향	• 주요 경쟁사 – Caterpillar, Komatsu • 주요 경쟁국 –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독일 등
	진출방안	• 현지에서 유지보수 가능한 에이전트 물색 필요 • 중장비 및 건설기기 품목 중심의 사절단 활용

의약품	선정사유	• 페루 정부, 2024년 보건 분야 예산 확대 • 2015년부터 한국 의약품 인증 절차 단축 – 안데스공동체 가입국 진출 용이 •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 진출 여건 양호
	시장동향	• 2023년 1월부로 정부 공공 구매 입찰 정상화 • 2023년 8월 기준, 한국 의약품(HS 300241) 수입 5.9% 증가
	경쟁동향	• 주요 경쟁사 – Roche, Pfizer, Merck, Sanofi, Novartis • 주요 경쟁국 – 미국, 독일, 인도, 콜롬비아, 멕시코 등
	진출방안	• 제네릭 의약품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주요 유통기업 발굴
의료기기	선정사유	• 페루 정부, 2024년 보건 분야 예산 확대 • 의료기기 시장 2026년까지 연평균 9% 성장 예상 • 한국 의료기기 인증 절차 단축(공장 실사 면제)
	시장동향	• 페루 의료기기 수입 시장 규모 약 5억 달러 수준 – 2026년 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對한국 주요 수입 제품은 X-레이, 초음파기기 등
	경쟁동향	• 주요 경쟁사 – Siemens, Nipro, Elekta, Draegerwerk 등 • 주요 경쟁국 –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
	진출방안	• 페루 의료기기 공공 구매 입찰 모니터링 •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인증이 가능한 주요 디스트리뷰터 발굴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 중고차 수입 규제로 인한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 • 페루 내 한국 브랜드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구성하고 있어 부품에 대한 지속적 수요 예상 • 관세율이 0%로 진출 여건 양호
	시장동향	• 엘니뇨 대비로 기계 부품 구매 수요 증가 • 애프터마켓 시장에서의 소모품 및 보수용품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주요 경쟁사 – Delphi, Denso, Gates 등 • 주요 경쟁국 –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진출방안	• 노후 차량 및 엘니뇨 피해로 자동차부품 수요가 높은 페루 지방 중심 마케팅 강화 – 아레키파(155만 명), 쿠스코(139만 명), 트루히요(91만 명) 주요 디스트리뷰터 공략 마케팅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 프로젝트 PMO	선정사유	•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 유망 - PMO 프로젝트는 자재비용 등과 같은 공사비용이 없어 순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됨 -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리마 메트로 2호선 감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높은 평판 보유
	시장동향	•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를 통해 G2G PMO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정부에서 해당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주 중 • 도시 재건, 도로 건설 PMO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 프로젝트 다수 발주 중
	경쟁동향	•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 - 다양한 G2G 입찰 경험
	진출방안	• 민관 팀코리아 구성, 진출 지원 - 정부 간 계약으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관 합동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사업 참여 추진
품목명 2		
IT 솔루션	선정사유	• 최근 치안·교통 시스템 개선방법에 대해 각종 지자체들에서 스마트 시티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 확대
	시장동향	• 페루 내 지자체들에 CCTV 등과 같은 보안장비가 상당수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장비에 대한 통합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경쟁동향	• Huawei 등 중국계 SI 기업 - 장점 : 파이낸싱, 주요 장비 등을 제공하고 수주하는 방식 - 단점 : 경험이 없고 구축된 플랫폼이 없음
	진출방안	• 관련 인콰이어리 발굴을 현지 주페루 대사관 및 KOTRA 리마 무역관에서 진행 중이며, 팀코리아 등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공공 프로젝트 참여	한-페루 프로젝트 민관 협의체 운영	연중 상시/리마
	중남미 플랜트·기계 사절단	상반기/리마
수출 유망품목 타깃사업	페루 K-뷰티 수출로드쇼 및 상담회	상반기/리마
	경기 생활소비재 사절단	상반기/리마
	방산 선도 거점 무역관 운영	연중 상시/리마
수출 단계별 지원사업	페루 수출중단기업 수출 재개 지원사업	연중 상시/리마
	내수기업 B2C 판촉 지원사업	연중 상시/리마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국가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 페루 예산안 발표	2024.11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2024.11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SEGURITEC Perú	2024년 4월 22~24일	보안장비 등
EXPOMECANICA & AUTOPARTES	2024년 5월 26~28일	기계, 자동차부품 등
COSMOBEAUTY PERÚ	2024년 6월 중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등
EXPOMINA PERÚ	2024년 9월 11~13일	광산장비 등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한규민	과장	리마 무역관	+51-1-442-9595	diegohan@kotra.or.kr

2024
페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지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53-1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